東亞日報
夕刊
七月二十三日(木)

米中크레디트設定
日中貿易大打擊
英米兩國共同投資의 諒解成立
中國은益益歐米에依存

【上海二十二日發電】 [illegible]

對中武器輸出
日本側嚴重監視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各民衆戰線勝利는
反日氣運을醞釀
西班牙擾亂은外務省重視

【東京電話】 [illegible]

土耳其政府
海峽武裝地帶進駐

【이스탄불二十一日發同盟】 [illegible]

朝鮮神宮中祭

[illegible]

에皇帝聯盟에御出席

[illegible]

米國海軍의新陣容

[illegible]

蒙古의全貌
◇陸軍의現有勢力

【哈爾賓十四日發電】 [illegible]

極力

[illegible]

滿蒙

[illegible]

西、右翼革命成功?
軍部獨裁制宣言
政府軍과猛烈한空、海應戰

【리스본二十一日發同盟】 [illegible]

食糧缺乏

市民戰戰兢兢狀態

【마드리드二十二日發同盟】 [illegible]

【지브랄탈二十二日發電】 [illegible]

首都進擊報道
正規軍民軍待機中

【巴里二十二日發同盟】 [illegible]

【세비리아二十二日發同盟】 [illegible]

日米關稅調整
委員會設置論擡頭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張天津市長
處罰陳謝等을公約

【天津二十二日發同盟】 [illegible]

外國居留民
安全保障不能
西班牙政府正式自認

【마드리드二十二日發同盟】 [illegible]

히랄內閣
總辭職

【리스본二十二日發】 [illegible]

蘇聯의軍事現狀
海蔘威를武裝코
極東을抑壓하는艦隊陣

[illegible]

武裝

[illegible]

對中日英協調
아직時期尙早
英土木相上院서答辯

【倫敦二十一日發】 [illegible]

極東

[illegible]

通商

[illegible]

日英

[illegible]

安定

[illegible]

第一回幹事會
議院制度調査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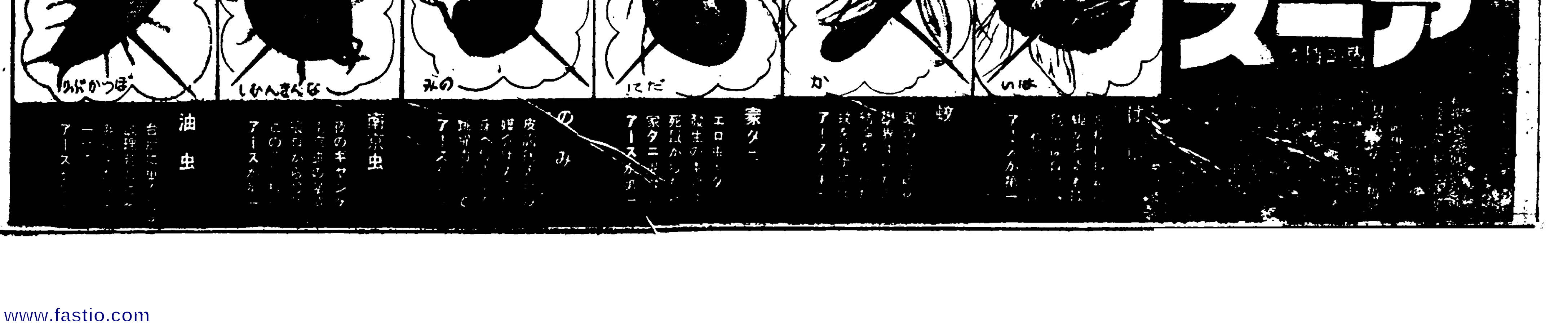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議院改革六項
國同側正式決定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橫說竪說

[illegible]



間共事件의死刑囚 十八名死刑執行

廿一、二兩日西大門刑務所서

鐵窓에呻吟七個年

간도공산당 七년동안에 공판전후 四번의 일심 이심에서 대량의 사형수를 내게된 간도공산당(間島共産黨)사건의 수령 주현갑(周現甲) 이동선(李東鮮)등 十八명의 사형수에 대한 최후언도공판이 지난 六월十八일에 고등법원에서 개정되어 여러상고가 기각으로 원심판결대로 사형으로 확정되었다함은 누보와 같거니와 경성복심법원에서는 지난 十일에 사형수들이 청구한 재심도 기각되었으므로 사형수들에 대한 일건서류를 법무국(法務局)으로 송치하였는바 동국에서는 숙의한 결과 사형집행의 명령이 있었으므로 재작일인 지난 二十一일과 二十二일양일에 걸쳐 서대문형무소에서 경성복심법원검사국의 입회하에 사형을 집행하였다한다.

제一일인 二十一일에는 주현갑(周現甲) 이동선(李東鮮) 박익섭(朴翼燮) 김광묵(金光默) 김동필(金東弼) 유대순(劉大順) 고하경(高河鯨) 김응수(金應洙) 김봉길(金鳳吉) [illegible] 이종립(李鍾立) 노창호(盧昌浩) 민창식(閔昌植) 지연호(池蓮浩) [illegible] 가각 집행하게되었다.

死刑된十八名

李東鮮(三二) 周現甲(三二) 朴翼燮(三二) 金光默(三?) 金東弼(二八) 劉大順(三?) 高河鯨(二六) 金應洙(二四) 金鳳吉(二九) 朴金哲(二?) 徐奈山(二四) 曹東律(二九) 金龍震(三一) 朴東弼(二九) 李鍾立(二八) 盧昌浩(二八) 閔昌植(?) 池蓮浩(?)

遺族에게屍體引渡

간도공산당사건의 사형수十八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二十一일과 二十二일 양일에 걸쳐 서대문형무소에서 집행되었다는바 사체에대하여는 그유족인 노창호의 사촌형인 노창식(盧昌植)과 그의부인 김씨(金氏)와 그외수명은 二十一일 오후에 서대문형무소로 달려와서 시체를 찾어갓다.

深夜에棄兒

二十二일 오전 一시경 마포 [illegible] 이승훈(李承勳) [illegible] 길에 [illegible] 여아가 있었다 [illegible]

平北에旱魃解消

枯死튼農作物도蘇生

中西部에는依然旱魃

二十三일 총독부 농림국 사전에 의하면 작二十二일 오전七시부터 二十三일 오전六시까지 사이의우량은 다음과같은데 이로인하야 평북(平北)방면의 한해는 위선해소되엇다한다. 그러나 평남(平南)과 황해(黃海) 경기(京畿)등지에는 한발이 의연계속하는 중이라한다.

△中江鎭三耗△新義州七△平壤七△江界五△京城五△全州二△雄基六△城津一△元山一○▲秋風嶺三△大邱六△釜山六△麗山一○

實業學校擴充

中等敎育十年計劃

총독부의 중등교육 조사위원회는 이미 二회에 [illegible] 개년계획 [illegible]

元山에도喜雨

[元山支局電話] 원산지방은 [illegible] 비가 내려 [illegible]

道化農民이 救濟를陳情

[安東縣] [illegible]

南海岸에颱風一過!

關釜線도禁足二日

六百餘乘客이埠頭에서露宿

多幸히被害는別無

[釜山支局電話] 어제 태풍에 [illegible] 남조선일대에는 어제저녁부터 [illegible] 관부연락선 [illegible] 六백여명 [illegible]

急行列車도運轉中止

[illegible]

安奉線復舊

[illegible] 평상시와 같이 개통 [illegible]

枇峴

평북 비현(枇峴)부근에는 그동안 한달이나 비가오지않아 농작물에 피해가 다대하야 [illegible]

定州

[illegible]

平康

[illegible] 지난二十二일오후六시부터 나리기 시작하야 방금 계속중이다. [illegible]

德川

[illegible] 지난二十二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illegible]

各地의天氣

今日午前六時

[illegible]

移秧枯死面積만

一萬四千餘町步

姑息的對策으로灌漑水節約

黃海道에酷甚한旱害

황해도(黃海道)지방의 계속되는 한발은 날이 갈수록 더욱심하야 [illegible] 一萬四千餘町步 [illegible]

金川郡	三七	信川郡 四一六
平山郡	一、五〇三	載寧郡 五五
新溪郡	二、三四三	黃州郡 四二六
遂安郡	四、四九七	鳳山郡 三二八
長淵郡	一、一七	瑞興郡 三〇六
松禾郡	六六八	遂安郡 一九一
殷栗郡	一、二七九	谷山郡
安岳郡	一、〇一一	合計 一四、九九一

黃海의代播種子費

三萬圓補助要求

明日도代作하기로

[illegible]

普校敎員不足

[illegible]

◇第二回女子水泳開講 上、開講式과 下、練習받는 光景(龍山鐵道프ールで에서)

北朝鮮酷暑는

廿年來新記錄

颱風九州에潛跡

[淸津] 三十一일 [illegible]

▲中江鎭三二미리▲新義州七미리▲平壤七미리▲江界五미리▲京城五미리▲全州二미리▲雄基 [illegible] ▲城津一미리▲元山一미리▲淸津 [illegible] ▲大邱六미리▲釜山六미리 [illegible]

爆藥이爆發

坑夫二名이重傷

盈德鑛山坑道에서

경북영덕군 [illegible] 二十二일 오전 [illegible]

職業戰線에

어린見習兵

짤막한夏休를利用하야 官衙、商店等에見習

[illegible]

電車에女子衝突

[illegible]

漢江에妙齡女屍

女店員이失戀自殺?

二十二일 오후四시경 [illegible] 한강 [illegible]

農村의少年 都市로高飛

[illegible]

破窓盜竊

[illegible]

天氣豫報

[illegible]

◎여름에 게하면 좀더잘사나?

[illegible]

진대명약 경오ー 경중완 일이삼 원원원
구로벨 임질대하 방광염

푸로다ー
나오뻬ー
가이자ー
에치뻬ー
엥구루

보음보양 저며지는데 가이자ー KAIZER 가제일

폐병 부족증 늑막염에 패오뻬ー KAOPER 가제일

임질 대하 방광염 냉병에 구로벨 KUROBER 이제일

매독엔 푸로다 PROTER 가제일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ClibPDF - www.fastio.com

小說 열세동무 (九)

盧良根 作
鄭玄雄 畵

七、편지 (2)

「시환군—

그동안 얼마나 기다렷나! 나는 제군의 념려로 무사히 상점에 여 예정대로 ××고보에 시험을치럿는데 오늘이야 입학허가된사람의 성명발표가 잇엇네. 참말 조마조마한 맘으로 가보니 다행히 내일홈도 잇어서 나는 어찌 기뻣든지

「되얏구나—」

하구 펀치것처럼 혼자소리를질럿느니 시험에 떠러진 희생들이 부러운듯 떠—나거던 나를 보는바람에 나는 오히려 미안하기까지 낫섯네! 제군에게 그러케 전해주게. 그런데 손군이 서울오니까 어리둥절해서 어더 견딜것나! 좌우간 나는 밤낫으로 제군생각을 허면서

「꽉, 성공하고야말리라」

하고 결심에 결심을 더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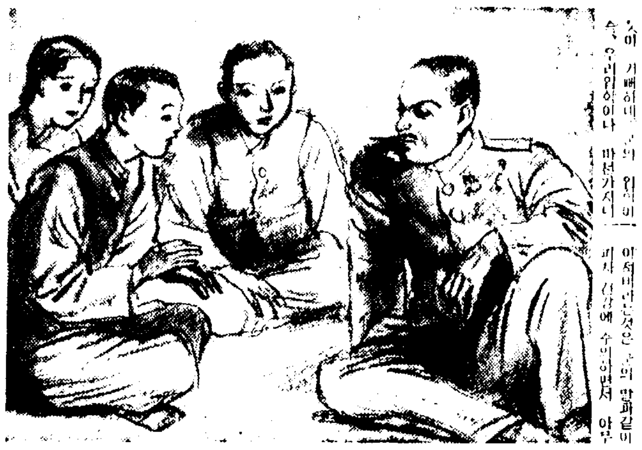
그리고 군이 순대군大金倉 살간식해두고 며칠요한때 군을 생각하면서 쓰는데 허네. 그런데 군은 뻬젼—그러케 침에 남치도록 수선불행든가? 나는 부어라고 가사안지 말수없네! 자—그럼 피시에 선생에 수의하시를바라고 자세한것은 또 다음번에 쓰기로하고 이만 끗치네」

이것은 물론 시환 이에게 온 편지엿습니다.

시환이는 대번에 그편지를들구 동내로 뛰어나가 편지연들을 동무에세보이고 모다같사람들에게두 자랑을하엿습니다. 그리고는 곤군의보낸편지 를다시 세번 참번가게 읽엇네. 얼마나 애썻니?

「정희군—

종이었음 혼자 걱벼지고 침에 썻네! 하여간 유쾌한 생각 할수없네. 우리 동무들은 모두 잘 있는가...



이 기뻐하네, 군의 앞에 우리앞이에 이렇기지...

이제바라든것은 군의 말과같이 피시 선생에 수의하면서 아무 아이한것없이 모두군의 얼이올 즐거하네, 우선이만..」

이런 회답을 윤겸에게부첫습니다. 그러나 참말 시환이 편지처럼 반가운 편지들이지. 여러분—열두동무가 모두 펼드시 기뻐한것은 아니엇고 또한 동네 어른들 이전부 윤겸의 입학을 즐겨한것은 아니엇습니다. 사실은 그러치 안타하드래도 시환이는 되도록 서울간 윤겸의맘을 흡족하게 안심식히여 맘 덧드는 윤겸에 터욱 엇지케하려는것이엇습니다.

그러나 첫재 「꽃시 나제나하」 도무지안나」

하구 은근히 시기하는 광철이와 개똘이가 시환의 내부하는 윤겸이편지를 보고는 그저 「응 입학햇구먼」 「의례히 입학되엿지, 머」 하고 그네게 반가워하는빛두없엇고, 또 광천이부모도

입학이되면 며칠이나 가서도루오겟다고... 단면이나 되어 오히려 시무룩해하엿고, 그뿐인가 만두장내카 신지못하리라는것을 숨그리면이 비웃은듯여겻습니다.

「입학은 되엿지만...」

그래도록 시환이는 이불이불로 「오나 회후는까지 세월두 나루 수부를 단단히 쉬엿습니다.

家庭

경우양복보조하는데…… (下)

어떠케두시나요

그대로니히두잇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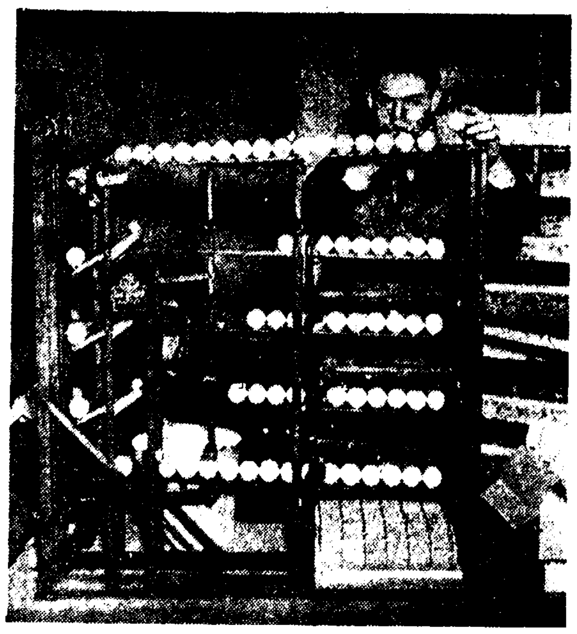
삼년입을것을이년밖에못입어요

그러면입지안을 것은 어제반한것을 가적으니까 양복을맨들기 전에 와같이 간단하게 입부니아볼때 미리털에다앙거서 오그라실대 우렴이나 하면여간한때러같 것이 오그라시게한후에 말러매리서 첫 없어지지마는 여러해동안 입어서 는것이 엇다 양복구를 특별히수분하 곱시터리웃것은 그대로 두라이걸 는 본와가빕니다 그러나너마성입 켠엉이나해서는 소용없오니까 빨 에오를은 사람들은 볼에당겟나가 하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데 문제는모시보 하는이가 그기때문에 쉬반하수 이라릴수에 들어가면 오그라저서 며서입은 양복이라도세탁신에 성쉬모양이 없어지는 불실이나로 하번갓다오면 무서히 입을수없을 아무것이나 밖걸어너가는 어렵습 만큼 맨드러오는경우가 잇는데이 니다. 런때는 세탁집소써도 잇서나와것

양복을마실때솜씨써서도 일 재색입은 양복맨든사람의 책임입 부러마치는것은 내봄에 맛게하라 니다. 그러므로 신용잇는데서 솜 고하기도 하거나와그보다도 모시 빗써더라도 하는것이 어기원인하 률을 붙여너호면 오그라지는성질 는것입니다. 한입 세탁신에 수를 경우에는 번저 불에당겻다사새날 입을때 써내부면 무거이여서 갈시 이 어떠케할수도없는일이니까 양 날마다 입지안든 예복같은것은

양복나프타린



★……닭알의 무게를 구별하는 기계……★

못쓰게된전구로 화병이됩니다

재조를부려보십시오

서발이린 에 선구(電球) 가 못쓰 게되면 어떠케쓰면 조형나는전 몸이엇는데 이렇게 솜씨를 부려 보십시오.

맨드는법은 먼저 선구에 볼을 것은 부분을 갈글으로 까버리고 거기통은 전구속에있는 선도없애 버립니다. 그다음에 그면이 쪽 되는 전사를 그림과같이 선구에 감는데 밑으로 가는편은 철주잇 는대로 넓게 가이노면 만바침이 됩니다.

나슴에 그림이나마 산수이게 그리면 꽃한종이 꽂는 꽃병이 울 쪽이됩니다. 그림을 못그리면 남 배씬 은종이를 아라비아고무풀로 부처도좃습니다.

신문이라는것은 인쇄잉크를 속 이라는 야릇을 저당하게 종이에 입부그러가만한 주머니를 오밀 씨서 신문지속에 너고 싸면 됩 묵어시 부중란으로 맨드어버우 니다.

영을 만도우케어면 입을때마다

하 개가당어나가 입을때마대지 안어도 좃습니다.

다만 무시분가든것 혹 털실로 이 싶어하고 바려서구루뿌을이라 짠것은 완원이께만리어 신문에싸 는것은 숨이 제 쉬어하는 이룸 는데 그속에다가 장뇌(樟腦)나 입니다 종이에 싸서넛든것은 그 나후다린부터 「파라지구롤벤졸」 대로 지설 녀어면 안이 서섭 에가서 상하고 변색하기가 쉬우 니까 수의해야 합니다.

라디오

JODK

七月二十三日(木)

▼後七時 ...라디오世界...

▼七時 課外講座 敎文高普 金道泰 (『星辰이야기』 高東)

▼八時 趣味講座 (朝鮮의 習俗과 迷信) ... 世界宗敎와 ... 張道彬

▼八時三十分 孔明歌 ...

▼九時 ... 金 ...

七月二十四日(金)

▼九時三十分 歌曲 一、界面調數大葉 二、界面調 三、... 四、... 五、... 編

▼午前六時 라디오體操

▼午後零時五分 遊山歌 ...

▼午後一時 野球試合實況 ...

▼六時三十分 라디오世界一週旅行 ...

▼七時 課外講座 ...

▼八時 趣味講演 「旅行의趣味」 李 ...

▼八時三十分 唱劇調 ...

▼八時五十五分 ...

▼九時三十分 名曲鑑賞 ...

第一放送

▲午後六時お伽話 ... 六時二十五分 ... ▲七時三十分 ... ▲八時 ... ▲八時五十分 ...

七月廿五日(土)

▼六時二十分 童謠 ...

▼七時 時事解設 申泰 ...

▼七時 ... ▼八時 ... ▼八時三十分 ... ▼九時三十分 ...

第一放送 ...

夏期男女劇藝術講座

要項

一、期間 七月二十七日부터八月一日까지
一、時間 每日午後八時부터十時까지
一、場所 ...
一、會費 ...
一、申込 ...

講座와講師 (順序)

七月廿七日(月)	演劇文化論	咸大勳
廿八日(火)	古典劇과浪漫劇	李軒求
廿九日(水)	近代劇과現代劇	金珖燮
三十日(木)	劇場과觀衆	柳致眞
卅一日(金)	戱曲作法	柳致眞
八月一日(土)	俳優論	柳致眞
三日(月)	新劇運動論	李相南
四日(火)	朝鮮古代劇	宋錫夏
五日(水)	朝鮮現代劇	徐恒錫

(日曜日은休講)

主催 劇藝術研究會
後援 東亞日報社學藝部

白蓮流轉記 (125)

尹白南 作
李靑田 畵

十三、요바이젓서곤十

저편의 태도가 의외로 유순하게 제우이 말을 노코 설마하니무 슨일이 잇으라하고 한번 툭툭이 버티여본결과가 그들의 겨분을사 게되매 이중구은 큰노두당황하엿 다.

이제껏 고양이처럼 온순하던저 도가 이시에 맹호같이 납벼며

「단번에 목을 버혀라」

하는 오렴이 소리는 천둥을 울린다.

「아니 여보」

하고 이중군은 간신히 점차한 태도로 이러케 말을 건넷다.

「내가 숭기가 원통한것이아니 오마는 나를 수인들 당신네의 소원이 이루어질리 없지않오」

「어쨋게 되차 순순히 수직한 결과가 조치못한 이상 더 사릴 것이 무엇이오 우리의 분우리를 당신의 목숨으로 푸는수밧게...」

이 어니잇수 애 이꼴 냉금 잡 이다.

「네 이년」

대답이 끗나기 전에 설人대한 장사들이 벌서대청에 한방등을 라다던다.

만사는 끝낫나보다 생각하엿다지 나의 형세로는 목을 너너이 버일 모양이니 최수하나 방송하고 아니는 문제로 목숨을 헛되이 버릴까닭은 없다.

장피한것은 한때이오 목숨은한번 일흐면 다시 어으지못한다.

「여보」

하고 이중군은 소중 틀엇다 그의 음성과 어조에는 분명이 애원하는실이가 나타나보이엇다 그러나 거분한 저도는 안색을 누이지안는다.

「천만존이 잇서도 저승에 가서 어서 ...」

하며 이중군의 부인에게 어서 편 이어지라는 군혹하는다

벼 장다리 같은 무리들은 일언의 사정이없이 우허니 달려들어 이중군의 네미를잡고 무릎을 거치고 번떡 이러거엿다 이중군 은 정신이 아득하엿다 그러나 사 마상려주 나는 배건의만이 나 가지는 아니하엿다.

이때 문 너머 여자의 음성 소리가 들리엇다.

「웨들 헌소동 허는게가 설산은 어리이니 맘놋번노릇것을」

「쉬— 스님 나오시네」

이중구의 목을 축기잡엇던 부하들도 손을노코 뒤로 나려간다.

긴장한 공기가 일시에 장내에 퍼지며 이제껏 정좌에 앉아서 오령오령하던 위인도 이러선다.

「날 좀 보시죠 오래간만에 뵙니다그려」

다소거에이은 음성이다 이중군은 머리를 돌리어 그를 바라본 찰나에 꿈인가하고 놀랏다.

배련이다 정녕 배련이다 불에 빠저 죽엇다는 배련이가 아닌가 그는 기생으로 잇엇을때보다 오히려한층 더 화려하게 피언 낫 에 요염한 미소를 띄고 기은치마 를 주섬주섬 걷어잡고는 정좌로 서름을 옴기어 앉이며

「아까부터 영감께서 행차하신 건 알엇습니다마는 계집이 나 설자리가 아니옵기에서 그냥 잇 엇습니다마는」

하고 설흘보며

「어떠케 맛갖을 엿시간레 이지 경에 이르렷오」

하고 책망을한다.

「알아드를만큼 청을해도 끝내 드러주지 안는것야 어쩌허오」

「그야 종내 안드르시면야 영감 의말을 버히던지 무엇이든지 그런 그대네들의 마음이려니와 영감의 체면이 계신것이 아니오」

하고는 다시

「영감」

하고부른다.

「영감은 인군님의 중한탑소를 받으서서 이서관백성으로하여 금 벼개를 높이하고 살게하시 사는 대관이 아니시오니까 그 러한 대관으로서 적도의 무리의손에 잡히어 이름없는 영을 한다면 그것은 영감한분 의 수치가 될뿐이 아니라 영감 댁 조상의 낫에 똥칠함이는것 이아니오니까 인군은 하지않고 사소한일이 아니오니까 여기서 받으시는 수치는 남이모르는 수치이니와 영감이 죽고보면 그 수치는 대대손손의 수치인 줄을 어찌모르시고 하시옵니까 싶이 생각해보시려니와 전 수라는 나의 낭수도 부소 점덕 다는 잇사가 잇읍니까 그것은 무 고한 백성을 괴롭게하는것으 로 마땅이 고처야할 정도가 아 니겟읍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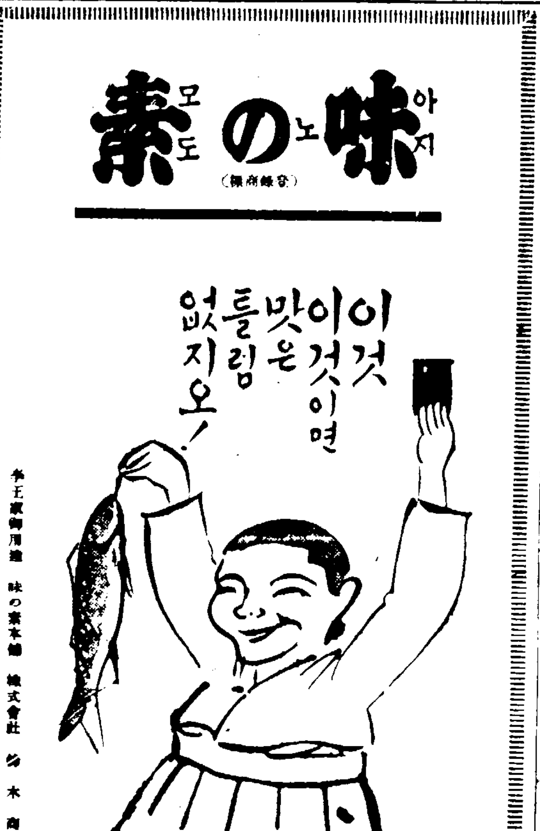
배련의 어세는 누히 유순하되 그 소리에대하야서는 일언반사의 변명할것이없엇다.

海平尹氏大同譜 를刊行하오니 僉宗은陰九月以內로 無漏送單하시되 未詳하시거든住所를 先示하시면譜事書類를送呈하겟나이다
丙子陽七月 日
京城府安國町八番地
海平尹氏大同譜所 白

面會 京城府...五丁目居住 ...

간질 ...
京城鍾路四丁目 ... 日光製藥社 ...

東亞日報購讀請求所
西四軒町 大興商會 電本六五三番



朝鮮唯一 電醫養成
現代成功의秘業
最新最高 電氣物理醫療師
◉東京電醫 醫學校創始學長責任指導
朝鮮高等電醫講習院

東洋劇場
外務社員採用
共濟無盡株式會社

蔘茸トニク 蔘茸토닉

萬病의效力이잇는 『홀몬』과各種『비타민』은 完全히血液으로

本劑를推奬하신諸先生

定價 ...
各百貨店及有名藥店에잇습니다
慈善堂製藥株式會社

第一劇場
(一七五五番)
七月廿三日부터晝夜
靑春座公演(第三週)
사랑에속고 돈에울고

第二劇場
花まつり

有名한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머리가몹시앞을때……노ー신
골치갈러지는것가치쑤실때……노ー신
간간히번두머리를알을때……노ー신

頭痛이아니라도머리가무겁고흐릿흐릿할때나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할때나
술을過飮하야그翌日氣分이조치못한때나
이노ー신한봉만잡수시면神出奇妙하게도나슴쁜만아니라
平時에服用하신대도머리가아주明快해집니다

이藥은全國賣藥店에잇읍니다
各處漢藥房에도부러보십시오

ノーシン 노ー신

定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二十八包入 一圓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郎合名會社

ClibPDF - www.fastio.com

大"工場"勞"賃"低下

生産費昻騰과逆傾向

勞働者生活苦를如實反證

朝鮮의 勞働大工場(職工使用五十人以上)의 工賃에對하야 昨年中의 工賃調査를 總督府에서 調査한바에 依하면 三百五十七工場 常雇 四十五萬五千八十六人이어서

日本內地人、朝鮮人의 男成年工은 保合이고 日本內地人成年女子의 十八錢高、朝鮮人男子幼年工의 十三錢高를除하는 滿洲人、朝鮮人 共히 一齊히 勞賃低下하야 이傾向은 注目된다

▲日本內地人成年工

	男	女
十年	一、八三	一、○六
前年	一、八三	一、○八

朝鮮鑛業投資 十億八千萬圓

日本內地資本은朝鮮의四倍

金鑛投資가半以上

移出港在米 約百十八萬石

取引所改革의 急激한斷行은回避

▽結城總裁調査方針言明

朝鮮海苔生産 未曾有의大記錄!

＝四百三十六萬五千三百四十圓＝

朝鮮府水産課調査에 依하면 昭和十一年一月로부터 六月까지의 朝鮮海苔生産高는 七億四百九十九萬枚로 ...

肥料低資配定

夏秋蠶掃立 ＝四十四萬枚內外＝

東京米取格付

價格差違로 東畓買收困難

延期一週 앞두고

監査役 辭表提出

東一銀行에又一波?

米日爲替續落

北朝鮮製油工場 清津에再建決定

財界瑣信

朝取短期前場步調

積極警戒

人氣表裡不同

朝取短期後場步調

完全한데마나 人氣依然警戒

財海餘波

大阪人絹現物

期米 昂騰後 低含

前場頭重

後場低迷

戾賣依然旺盛

米豆餘墨

正米商狀 强含

京城續高

仁川强化

群山强化

木浦小康

釜山閑散

大邱小康

株式 往來浮動

時勢와市況

今日의市況 七月二十三日

實物賣買價前場

大阪國債市場

內外金銀時勢

氣壓配置注目

海外經濟

金融

商品

株式

期米

正米

地方景氣

康益夏商店 仁川 米 京城 株 金益證券株式會社

仁川 福 米期 吉村取引店

金石福土金 高價買入 石福鑛業株式會社 金白金地金部